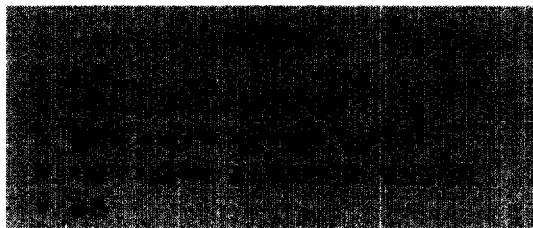


마술적 사실주의의 근대성: 문화적 주체성 모색을 통한 탈식민서사의 확립

우석균(서울대학교)



I. 서론

마술적 사실주의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서구에서도 비평적 범주 설정에 있어 혼란을 야기한 용어이다. 마술적 사실주의를 라틴아메리카의 특수한 문학사조로 보는 입장과 보편적 문학현상으로 규정하는 입장, 순수한 미학적 표명으로 보는 입장과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양식으로 보는 입장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 결여를 극복할 수 있을 탈식민서사로 보는 입장 등등 그야말로 모순의 극치를 이루는 평가들이 공존한다.

사실 마술적 사실주의는 이런 모순된 비평적 스펙트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서구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류학, 심리학, 아방가르드 운동 등이 비이성적인 것에 경도되던 분위기

속에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세계문학의 반열에 오른 1960년대의 소위 '봄' 현상은 웬만한 라틴아메리카 소설을 마술적 사실주의로 규정하는 오류를 야기했다.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모순어법(oxymoron)적 표현만큼 세계문학의 반열에 새로이 오른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참신성을 돋보이게 하는 용어도 없었던 탓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규명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술적 사실주의가 1920년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력을 이어올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르는 미술 양식으로, 융의 집단무의식 개념의 예로, 초현실주의의 교정적 시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의 단초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서사의 선구적 양식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제 문제점만을 다룬 「마술적 사실주의의 쟁점들」(우석균, 2000)의 후속 연구인 본고에서는 마술적 사실주의에 접근하는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마술적 사실주의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마술적 사실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러면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최근 연구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려 한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 근대성의 주요 표명 양식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전근대와 근대가 겹치는 독특한 라틴아메리카 현실, 즉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공존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양식이 마술적 사실주의이다. 또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이라는 과제가 절실히 요구되던 시대적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대중을 통합시키기 위한 문화적 기제로서 뿌리를 내렸으며, 나아가 신식민지적 질서 속에서 탈식민성을 모색하면서 생명력을 얻었다. 따

라서 마술적 사실주의는 탈식민서사로서 태동한 것이므로 결코 거대 담론을 포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적 양식으로 보는 견해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그리고 마술적 사실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꽃피기 이전에 이미 서구문학에 존재했다는 보편주의적 해석이나, 탈식민주의의 선구자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탈식민주의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영어권 국가에서 태동되었다는 시각 역시 탈식민주의를 가장한 신식민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마술적 사실주의의 역사적 맥락

까르멘띠에르가 『지상의 왕국』(*El reino de este mundo*, 1949) 서문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자연, 인물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이 경이로우니까 문학도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Carpentier, 1991: 391), 이는 언뜻 현실이 문학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기계론적 반영론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곤살레스 에체바리아가 지적하듯, 까르멘띠에르가 말하는 ‘경이로운 현실’(lo real maravilloso)은 라틴아메리카가 서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존재론적 인식에서 비롯된 마술적 사실주의로,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쓴 프란츠 로의 마술적 사실주의와는 다르다(González Echevarría, 1993: 141). 사실 프란츠 로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을 권유했고 새로운 시각을 통해 사물의 마술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니(Roh, 1927: 39-52) 현상학적 마술주의라 할 수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까르멘띠에르와 유사한 현실관을 지닌 탓에 마찬가지로 오해를 받았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백년 동안의 고독』(*Cien años de soledad*, 1967)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작품도 마술적인 작품도 아닌 지극히 사실적인 작품임을 역설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일상 자체가 『백년 동안의 고독』의 작품

세계처럼 예언, 주술적 치료, 미신 등등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García Márquez, 1983: 61).

사실 라틴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는 단순히 상상력의 소산이나 미학적 변조가 아니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역사적 조건이 낳은 독특한 문학양식이다.¹⁾ 아스투리아스는 마술적 사실주의가 종교나 민간제의(cult)에 경도된 인디오들의 의식구조와 관계 있다고 말하는데(Lorenz, 1970: 49-50), 이런 상관관계는 역사적 유산이며 그 기원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시대에 원주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메스티조나 심지어 크리오요(criollo)까지도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길이 봉쇄된 삶을 살아야했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 혹은 합리적인 평가를 받아 신분상승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종교나 민간제의를 통해 위안을 구하는 것은 식민시대 삶의 양식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특징이 20세기 마술적 사실주의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 윌리엄 로와 비비안 쉘링의 견해이다(Rowe y Schelling, 1993: 23).

종속이론가들 혹은 20세기 초반의 인류학이나 사회학은 라틴아메리카에 만연된 이런 마술적 의식구조를 두고 식민잔재라든가 주술이라고 치부한 바 있다. 그러나 마술적 의식구조는 식민잔재나 주술이기 이전에 식민시대부터 뿌리를 내린 역사적 조건이었으며,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마술적 의식구조를 탄생시킨 사회적 현실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물질적 조건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적고, 소외된 이들의 불만을 조절할 메커니즘도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1960,

1) 이 점에 있어 보르헤스는 예외이다.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고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에세이인 「서사예술과 마술」(1932)에서 보르헤스는 서사의 사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현실(텍스트 현실)이 탄생하고, 이런 서사가 마술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Borges, 1974: 230-2). 보르헤스가 '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의 영향이다(Chiampì, 1983: 57).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간에, 보르헤스는 현실이 마술적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 문학에 있어 현실과 텍스트 현실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싶었을 뿐이다. 보르헤스를 마술적 사실주의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카르멘타에르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는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이나 역사와 무관하게 마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70년대의 각종 혁명으로 분출될 정도였다.

미술적 혹은 주술적 사고가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일상의 삶에 잔존하는 현상은 라틴아메리카 근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는 여러 근대기획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작동하였다. 과연 라틴아메리카 근대의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는 분명 논란거리이다. 종속이론가 프랭크나 세계자본주의체제론을 확립한 월러스틴처럼 신대륙이 발견된 직후인 16세기를 기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홍옥현, 1983: 62; 강성호, 1996: 42-4.),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국민국가 건립의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근대성에 대한 의식이 생긴 독립운동기를 기점으로 잡을 수도 있다. 또 원자재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세계분업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19세기말이나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어느 정도 성숙된 20세기 중반기의 수입대체산업화 시기 역시 근대의 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 미국의 쿠바침공(1898)에서 쿠바혁명에 이르기까지 신식민주의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해방기획을 기점으로 상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근대의 기점을 이렇게 상이하게 상정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두고 가르시아 캄플리니는 다시대적 이종혼형성(heterogeneidad multitemporal)이라고 정의한다(García Canclini, 1989: 72). 즉 전통적인 요소나 '식민잔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무엇인가로 대체되지 못하고, 새로운 것과 뒤섞여 혼재하는 양상이 이제는 라틴아메리카 근대의 전통이자 역사적 조건이 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결국 '비이성적'인 미술적 사고가 서구 이성 패러다임의 적자인 사실주의와 결합한 미술적 사실주의는 단순한 문학기법이나 사조가 아니라 다시대적 이종혼형성이라는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에 바탕을 둔 문화양식이자 문학양식이다.

Ⅲ. 문화적 주체성 추구하고 미술적 사실주의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이 미술적 사실주의라는 문학양식으로 귀결

되기까지에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다. 현실이 마술적이기 때문에 혹은 마술적 의식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학이 자동적으로 마술적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는 문학에서의 마술적 사실주의 양식이 20세기 중반에야 나타났다는 점이 입증해준다. 과달루페(Guadalupe) 숭배나 잉카왕이 메시아가 되어 재림할 것이라는 마술적 신앙, 아니면 기타 신화, 전설, 민담, 제례의식, 민속, 음악 등의 예가 마술과 현실의 가교가 되어왔을 뿐, 20세기 초반까지의 제도권 문학이 마술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저 마술적 모티브라도 사용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 마술적 사실주의 문학은 제국주의의 사슬로부터의 해방과 국민통합을 통한 진정한 국민국가 건설이 라틴아메리카 20세기 근대기획의 주 과제가 되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적 주체성의 필요성을 담론화한 후에야 꽃필 수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20세기의 문을 연 두 사건은 1898년의 미국의 쿠바 침략과 1910년의 멕시코혁명이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20세기가 1898년 미국의 쿠바침략으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이 격동의 라틴아메리카 20세기 역사를 특징짓는 반제국주의 담론 형성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뒤늦게 스페인에서 독립한 쿠바는 바로 미국의 세력권에 편입되었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쓰여진 마르띠의 「우리 아메리카」(1891)²⁾나 로도의 『아리엘』(Ariel, 1900)이 반제국주의 담론 형성의 초석이 되었다.

둘째, 멕시코혁명은 실증주의를 지배이념으로 내세운 과두계층을 뒤쫓는 사건이다. 비록 피지배층의 욕구가 이렇듯 대혁명으로 급격하게 분출된 예는 멕시코밖에 없으나, 라틴아메리카의 과두계층은 1차 대전의 여파로 인한 1차 상품 가격의 하락, 이에 따른 경제난과 대중의 정치적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고(Carmagnani, 1984: 176-8),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통합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19세기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내전, 까우디요의 전횡,

2) 마르띠는 미국 망명시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쿠바침공 훨씬 이전에 이미 깨닫고 「우리 아메리카」라는 글을 멕시코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과두지배 체제의 고착 등의 와중에서 실종된 국민통합이라는 근대적 기획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외부지향적 해방기획과 내부지향적 국민통합기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위의 두 움직임은 사회변혁을 위해 문화적 주체성 고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었다. 해방기획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극복할 방안으로 마르띠처럼 라틴아메리카의 혼혈적 특징(mestizaje)에 자긍심을 부여하거나 로도처럼 미국식 물질문명 대신 정신적 가치의 고양을 부르짖었고, 국민통합기획은 정치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을 타파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 방안으로 전통문화의 복원을 부르짖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반외세를 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을 결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문화적 민족주의 담론을 개발해 낸 것이다.³⁾

물론 해방기획이 맹목적 반보편주의로 흐를 때도 있었기에 과연 진정한 탈식민성을 획득했느냐는 의문이다. 또, 국민통합기획의 경우 포폴리즘에 불과하거나 지식인들의 지적 권력 추구 게임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서구가 주술로 격하시키거나 호기심의 대상 쫓으로만 여기던 마술적 세계관이거나 제의가 이성과 동등한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마술적 세계와 ‘사실적’ 세계의 공존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마술적 사실주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주체성의 고양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었다.

3) 마르띠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사상적 참호”(“trincheras de ideas”, Martí, 1980: 9)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마르띠에 따르면 사상적 참호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의 토착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Martí, 1980: 11-2). 로도는 라틴아메리카인의 미래가 미국의 천박한 실용주의 노선 도입보다는 그리스에서 발현되어 스페인, 라틴아메리카로 면면히 이어진 인문주의적 라틴문화전통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았다(Rodó, 1957: 208-213). 두 사람 모두 해방기획의 과제로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통합기획에 따른 문화적 주체성 확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국민통합기획과 지식인 주도의 국민통합기획이다. 국가 주도의 대표적 경우는 멕시코 혁명정부의 문화정책과 페루 레기아 정권의(Augusto Bernardino Leguía, 1908-1912, 1919-1930) 인디헤니즘(indigenismo) 고양 정책을 들 수 있다. 지식인 주도의 대표적 예는 인디헤니즘의 대변자 마리아떼기(José Carlos Mariátegui)와 아프리카-쿠바주의(afrocubanismo)를 주도한 쿠바의 기옌(Nicolás Guillén)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아프리카문화와 잉카문화의 계승자인 쿠바와 페루 대중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라틴아메리카적 문화적 주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마술적 사실주의로 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적 사실주의 범주는 여전히 실체 자체가 의심받아왔다.⁴⁾ 1973년 미시간에서 열린 마술적 사실주의 심포지움에서 로드리게스 모네갈은 마술적 사실주의 논쟁을 '귀머거리들의 대화'라고 폄하하였다. 실체도 없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두고 부질없는 논쟁을 벌인다는 의미에서였다(Mena, 1975: 39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적 사실주의가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실체가 있는 범주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해방기획이나 국민통합기획이 낳은 문화적 담론인 동시에 서구의 문화적 맥락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에밀 볼렉은 마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상품으로, 서구문화를 수입, 가공하여 재수출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피력하는데(Volek, 1990: 11), 사실 마술적 사실주의의 탄생에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서구에서 고조된 자신의 문명에 대한 회의와 위기감이라는 문화적 맥락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카르멘띠에르에게 있어 슈팽글러의 영향은 결정적이라고 에체바리아 곤살레스는 말한다. 서구문명이 주기를 다하여 몰락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이 융성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이미 멕시코혁명 직후의 국민통합기획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지만, 그로부터 20년 후인 2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의 라틴아메리카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스페인 내전으로 슈팽글러의 예찬자이자 그를 스페인어권에 소개한 오르테가 이 가셋의 제자들이 라틴아메리카로 건너온 탓이다. 게다가 2차 대전은 유럽에 거주하다 전쟁을 피해 귀국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에게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재발견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때 슈팽글러의 예언은 라

4) 마술적 사실주의의 범주 설정에 혼란을 야기한 요인들은 1)마술적 사실주의가 원래 회화양식을 일컫는 용어였고, 2)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로 흔히 분류되는 보르헤스나 카르멘띠에르, 심지어 가르시아 마르케스까지도 마술적 사실주의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며, 3)마술적 사실주의가 여러 단계에 걸쳐 전개되면서도 각 단계 간에 특별히 유기적인 관계를 찾기 힘들고, 4)『백년 동안의 고독』의 상업적 성공으로 마술적 사실주의와 이 작품을 동일시하는 오류가 심각했고, 5)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서구에 수용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둘러싼 서구와 라틴아메리카의 현격한 시각 차이가 생겨났기 때문이다(우석균, 2000: 690-2).

틴아메리카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품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슈펩글러는 새로운 문명론 뿐만 아니라 원시적 사고방식의 특징인 비성찰성(irreflexividad)을 이성보다 우위에 둔 점(González Echevarría, 1993: 151-3) 까르뻬띠에르에게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정신분석학, 아방가르드 운동, 인류학 등등의 분야에서 비합리성, 주술, 무의식 등에 호기심을 나타내거나, 나아가 이들을 이성 중심의 서구문명의 대안 내지 탈출구로 여기기까지 하던 문화적 맥락에 슈펩글러가 위치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까르뻬띠에르는 라틴아메리카처럼 '원시적' 사고가 만연한 땅도 서구식 이성주의의 도입 없이도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슈펩글러를 통해 얻은 것이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나름대로의 문화적 주체성 회복운동의 성과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서구/라틴아메리카의 차이를 이성/미술의 차이로 공식화하기까지에는 문화적 맥락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IV. 미술적 사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술적 사실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토대 위에서 꽃이 피었다. 그러나 최근의 미술적 사실주의 연구는 미술적 사실주의를 마치 보편적인 예술양식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물론 그럴만한 근거는 있다.

첫째, 미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원래 서구에서 탄생하였다. 비록 낭만주의의 문학관에 반하는 부정적인 범주로 사용했지만, 이 용어를 처음 쓴 이는 노발리스였다(Volek, 1990: 4). 미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란츠 로는 독일의 후기표현주의 회화양식(신즉물주의)이 미술적 사실주의라고 정의하고, 나아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회화에도 미술적 사실주의 양식이 일부 존재함을 역설했다.⁵⁾ 게다가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 작가 본템

5) 프란츠 로의 책 부록에는 90편 정도의 그림이 실려 있다. 후기표현주의와의 대비를

펠리(Massimo Bontempelli)도 미술과 문학에서 미래파를 극복하고 미술적 사실주의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Menton, 1983: 16), 미국에서도 1차 세계대전 이후 자생적으로 1943년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 및 미술적 사실주의 작가전>(American Realists and Magic Realists)이 열린 바 있다(Menton, 1983: 9). 그리고 한동안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하이퍼 리얼리즘, 슈퍼 리얼리즘, 새로운 리얼리즘, 포토 리얼리즘 등등의 명칭으로 1960년대에 즈음하여 다시 소생했는데, 마침 라틴아메리카 문학이 서구에 활발히 소개되던 무렵이라 새로운 회화양식을 통칭하여 미술적 사실주의라고 부른 적도 있었다(Menton, 1983: 93-105).

둘째, 미술적 사실주의와 서구 문학기법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미술적 사실주의에 속하는 작가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학기법의 현대화를 성취한 이들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만연하던 자연주의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극복하고자 영미식 모더니즘이나 프랑스식 아방가르드 기법을 수입하였다. 따라서 서구가 미술적 사실주의를 적극 수용하게 되면서 미술적 사실주의가 보편적 문학현상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흔히 미술적 사실주의 작가로 분류되는 까르뻬띠에르, 아스투리아스, 우솔라르 뻬에뜨리 등은 청년 시절에 파리에서 초현실주의와 직접 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적 사실주의가 초현실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도 미술적 사실주의 탄생 초기에는 환상문학과의 연관성이 거론된 적이 있으며, 또 특정 유파와의 상관성을 탐색하는 것 이외에도 미술적 사실주의가 『데카메론』, 『천일야화』, 『돈끼호테』 등 서구 고전에 이미 존재하던 양식이라는 주장도 있고(Parkinson Zamora y Faris: 1997: 2-4), 미국의 로망스가 이미 미술적 사실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Ude, 1981: 30) 문학에 있어서의 미술성을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었다.

위해 다른 경향의 작품도 소개하고 있지만 주로 후기표현주의 작품들이다. 그로스, 덕스, 슈림프, 카놀트 등등의 독일 화가들 외에도 프랑스의 앙리 루소, 이탈리아의 카라, 키리코, 스페인의 미로, 피카소 등등의 그림이 실려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마술적 사실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셋째, 가장 최근의 문학적 경향으로 대두된 탈식민주의가 마술적 사실주의를 전세계적 장르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1960년대에 가장 의미심장한 주변부 문학양식은 라틴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와 소잉카, 벤 오크리 등의 식민 경험이 있는 영어권 마술적 사실주의이다(Durix, 1998: 102). 또한 탈식민주의 문학이론에서 반언술(counter-discourse)로서의 탈식민문학을 주창한 슬레몬이나 티핀 역시 영어권 지역에서도 마술적 사실주의가 유효한 반언술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Slemon, 1988: 9-10; Tiffin, 1992: 39) 마술적 사실주의의 지평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넓혔다. 살만 루쉬디가 마술적 사실주의로 분류되거나, 1960년대 후반 캐나다의 문학이 '전통적' 문학과 결별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식의 평가는 이제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또한 붙여권인 아이티에서 1956년 J. S. 알렉시가 쓴 「아이티인의 경이로운 사실주의에 관하여」("Of the Marvellous Realism of the Haitians") 역시 탈식민적 마술적 사실주의로 거론된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마술적 사실주의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문학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몇몇 사례는 이미 그 허구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예컨대 후기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환상문학, 하이퍼 리얼리즘 등의 경우 마술적 사실주의와 아예 역사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탄생하였거나,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 자체만 공유할 뿐 전혀 다른 범주를 지칭한다.⁶⁾ 마술적 사실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

6) 1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겪은 독일이 안정을 회구하면서, 표현주의의 실험정신 대신 소박한 일상에서 어떤 영적인 것, 즉 마술성을 느껴보자는 것이 후기표현주의였다(Menton, 1983: 26-7). 초현실주의와 마술적 사실주의의 차이점은 카르멘피에르 자신이 이미 명시한 바 있다. 전자가 경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문화적 기교"("artimaña literaria", Carpentier, 1991: 390-1)에 불과한 것이어서, 본질적인 경이로움을 주장하는 카르멘피에르의 입장과는 분명 다르다. 카르멘피에르의 '경이로운 현실' 개념과 초현실주의 경이로운 현실 개념과의 차이 혹은 마술적 사실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

의의 한 유파로 보는 시각 역시 문제의 소지가 많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전세계로 퍼져 문화적 지배소가 된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첨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가 신식민주의적 상황을 고착시킬 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는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극복할 방안으로 탈식민주의를 내세웠다(Tiffin, 1988: 170-2).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가 공히 마술적 사실주의를 포용하려는 것은 확연한 모순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⁷⁾ 물론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가 마술적 사실주의를 제대로 수용했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지만 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마술적 사실주의를 수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한 예로 웬디 패리스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메타픽션, 언어의 마술성, 천연덕스러운 서사기법(스토리텔링), 반복적 서사기법, 등장인물들의 자유자재로운 변신, 기존질서에 대한 반발,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간 신앙과 지식의 차용, 집단적 무의식에 의거한 마술성, 카니발화 등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이라고 규정한다(Parkinson Zamora y Faris, 2001: 164-180). 그런데 이런 식의 수용을 검토해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삭제하는지 알 수 있다.

가령, 심킨스는 메타픽션으로서의 마술적 사실주의를 논한다. 논의의 출발점은 서구의 사실주의적 서사가 이루지 못한 ‘완벽한 재현’, 즉 언어와 현실의 간극을 극복하리라는 이상을 마술적 서사로 보완

는 이미 여러 글에서 다루어졌다(Márquez Rodríguez, 1982: 29-51; Karp, 1982: 99-116D; Rodríguez Monegal, 1971: 619-630). 하이퍼 리얼리즘이나 이와 유사한 포토 리얼리즘을 마술적 사실주의와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움베르토 에코가 말하는 하이퍼 리얼리즘은 근본적으로 언어나 역사가 허구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표면적인 혹은 표층적인 현실의 사실성을 추구하는데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소산인 라틴아메리카 마술적 사실주의와는 다르다.

7) 물론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탈식민주의 자체가 주체와 타자, 중심과 주변, ‘우리’와 ‘그들’식의 이항대립적 논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해체의 대상인 식민주의의 인식과 재현의 틀을 오히려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경원, 1998: 760)을 경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뒤에서 논하겠지만, 적어도 탈식민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처럼 마술적 사실주의의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여 달성하려는 것이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정의에서이다. 보르헤스의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있는 정원」(“El jardín de senderos que se bifurcan”)과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을 분석하면서, 소설은 결국 현실이 아니라 텍스트일 뿐이라는 제약 때문에 마술적 사실주의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재현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 손실을 극복하려는 고통스런 자의식을 끊임없이 반영하는 메타비평적 담론일 뿐이라고 말한다(Parkinson Zamora y Faris, 2001: 123-143).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이래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 경향인 메타픽션은 현실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와 사회변혁에 대한 낙관적 전망 상실의 소산이다. 따라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메타픽션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마술적 사실주의의 성과를 도외시킨 것이다.

마술적 사실주의를 스토리텔링의 대명사인 듯 하는 수용태도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이 마술적 사실주의를 주목하게 된 데에는 존 바스의 공헌이 크다.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작가인 바스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이탈로 칼비노가 빠져 있는 어떠한 문학클럽에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극찬을 보낸 바 있다(Barth, 1985: 107). 그러면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스토리텔러의 대가인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라는 점을 들고 있다(Barth, 1985: 118). 물론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스의 태도는 그다지 비판할 일이 못될지도 모른다. 애초에 서구가 『백년 동안의 고독』에 즉각적으로 열광적인 찬사를 보낸 이유가 모더니즘, 실존주의, 누보로망, 메타픽션, 반소설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없는’ 소설계보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독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변신을 꾀할 때 『백년 동안의 고독』 식의 스토리텔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테면 린다 허천은 문학, 역사, 서사의 영역을 통합하는 사료적 메타픽션(historiographic metafiction)이 새로운 조류라고 정의했으며, 『백년 동안의 고독』이 그 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소설이 메타픽션이면서도 정치성과 역사성을 띠고 있음을 환기시켰다(김옥동, 1996: 154-5). 그러나 린다 허천의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사료적 메타픽션으로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수용한다고 해서 라틴아메리카 마술적 사실주의에서처럼 거대담론적 역사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에코의 하이퍼 리얼리즘의 표피성이 마술적 사실주의와 다르다는 지적을 했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자서전 소설이나 전기문학, 미니멀리즘이 유행했던 현상은 스토리텔링이 단지 개개인의 역사나 제한된 공간의 소소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쓰였음을 보여준다(권택영, 1995: 310). 이런 식의 마술적 사실주의 수용은 결국 기법의 차용에 그친 것과 진배없다.

물론 마술적 사실주의가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거대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비평가들도 있다. 가령 제임슨은 전자본주의적 양상과 새로이 태동하는 자본주의적 양상이 공존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특수한 상황에서 마술적 사실주의가 탄생했음을 직시하였다(Jameson, 1986: 311). 또 마술적 사실주의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미지 소비성향과는 다른 서사논리라고 말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였다(Jameson, 1986: 302). 모레티는 『백년 동안의 고독』은, 마콘도가 근대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을 그린 불균등 복합 발전에 관한 소설이라고 규정한다(Moretti, 1999: 291-2). 고립된 작은 마을이던 마콘도가 외부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이념투쟁과 제국주의를 겪고, 기술문명이 물밀 듯이 밀려오면서 전통적 삶에 혼란을 야기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임을 주목한 것이다.

마술적 사실주의에 거대담론적 역사성을 되돌려주려는 제임슨과 모레티의 시도는, 비록 좀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적어도 라틴아메리카 마술적 사실주의의 근대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마술적 사실주의는 전근대적 전통의 잔재인 주술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근대의 발명품임을 통찰하고 있다. 즉 전통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사고방식과 뒤섞이는 것이 전통이 되어 버렸으며 늘 서구와의 관계설정에 고심해야하는 라틴아메리카적 근대의 발명품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두 사람이 라틴아메리카적 근대의 처절한 목표의 하나인 문화적 주체성에 대한 열망을 얼마만큼이나 치열하게 인식하였는지, 또 이를 올바르게 인식했다하더라도 서구와 라틴아메리카의 차이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서구를 설득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제임스만큼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 극복하려 했으며, 모레티만큼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주의를 경계하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인종, 계급, 젠더에 대한 관심-을 일정부분 복원하려는 탈식민주의가 등장했음에도 마술적 사실주의는 여전히 메트로폴리스의 담론을 통해 재조명되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출간된 1978년에 탈식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가령, 사이드는 이 책의 서문에서 계몽주의이래의 유럽이 정치적·사회적·군사적·이데올로기적·과학적으로 또는 상상력으로써 오리엔트를 관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언술(discourse)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Said, 1996: 16). 『오리엔탈리즘』이 출간된 이후 슬레몬이나 헬렌 티핀은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반언술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탈식민주의의 주요 글쓰기 전략에 대하여 논하였다. 서구의 지배언술의 폐기, 전유, 되받아 쓰기(write back) 등은 탈식민주의의 전략적 글쓰기 사례이다(김성곤, 1992: 24-6). 그런데 탈식민주의가 이론화된 이후 마술적 사실주의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반언술의 개념을 통해서였다. 슬레몬의 『탈식민 언술로서의 마술적 사실주의』나 장 피에르 듀릭스가 『미메시스, 장르, 탈식민 언술: 마술적 사실주의의 해체』에서 시도한 바로 그대로이다. 이런 접근이 지니는 문제점은 마술적 사실주의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나 탈식민주의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신식민주의적 질서에 강력히 도전하는 탈식민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J. S. 알렉시가 이미 1950년대에 주

장한 경이로운 사실주의 역시 같은 운명을 걸었고,⁸⁾ 그 결과 이제는 미술적 사실주의와 경이로운 사실주의를 탈식민주의라는 같은 범주로 재단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미술적 사실주의에는 탈식민주의의 주요 논리인 반언술적 특징이 존재한다. 미술적 사실주의와 경이로운 사실주의가 탈식민성을 공유한다는 평가도 주변부 문학이 국지적 문학이 아니라 보편적 문학임을 인정하는 것이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또, 특정 문학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이론정립이 이루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탈식민주의의 역사인식이나 이론 정립과정을 들여다보면 탈식민주의가 과연 미술적 사실주의의 진정한 탈식민성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미술적 사실주의와 탈식민주의의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하려하기 보다는 글쓰기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탈식민주의는 보통 신식민주의의 시작을 수많은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한 2차 세계대전 후로 본다는 점이 더욱 문제이다. 탈식민주의 이론 정립에 기여한 이론가들도 팔레스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태어났거나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식민주의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지배 문화로 등장한 영문학의 저항과 회의에서 시작되었고 기본적으로 불어권이나 스페인어권보다는 영국의 지배하에서 식민 경험을 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탈식민주의를 소개하는(김성곤, 1992:18-20)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 때문에 미술적 사실주의의 라틴아메리카

8) 경이로운 사실주의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으로 해서 스페인어권의 미술적 사실주의와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경이로운 사실주의는 전 세계에 퍼져 나간 모든 흑인들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흑인들이 식민시대 이전의 아프리카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네그리튀드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Durix, 1998: 72-3) 미술적 사실주의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경이로운 사실주의는 해리스(Willson Harris)나 J. M. 대쉬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네그리튀드 운동이 신식민주의적 억압기제일 뿐임을 고발하는 탈식민주의로 발전한다. 네그리튀드 운동처럼 식민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식민시대를 살던 선조들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스스로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식민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식민적 사고를 주입시켜 식민지인에 대한 정신적·문화적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 서구의 식민주의를 암암리에 수용하는 셈이라는 인식 하에서였다(Dash, 1974: 65-6).

적 탈식민성은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바로 이 점이 탈식민주의가 마술적 사실주의를 수용하는 방식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V. 결론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국내 수용의 역사는 아직 일천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 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군부독재시대 때보다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마술적 사실주의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삭제하는 경향이 있고, 탈식민주의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글쓰기의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영어권 탈식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거의 하나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개진되리라 믿는 국내의 마술적 사실주의 연구가 라틴아메리카 맥락을 도외시킨 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적 시각으로 편향될 우려를 씻을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적 시각인 마술적 사실주의의 보편성 논의와 더불어, 마술적 사실주의가 원래 신식민주의적 질서에 대한 반발, 문화적 자긍심 고양의 필요성, 국민통합이라는 라틴아메리카의 근대기획, 제3세계론 등등과 맞물려 탄생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의 마술적 사실주의 연구는 과거 제3세계 문학론이 유행하던 당시처럼 제한적이고 경직된 논의에 그칠 것이며,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라는 '유행'과 명멸을 같이 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론과 제국주의론」, 한국 서양사학회편, 『근대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이해: 브로델과 월러스틴을 중심으로』, 서울: 까치, 1996, pp. 42-66.
-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자연주의에서 미니멀리즘까지』, 서울: 민음사, 1995.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 pp. 12-31.
- 김옥동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우석균, 「마술적 사실주의의 쟁점들」, 『서어서문연구』, 17, 2000, pp. 689-701.
- 이경덕, 「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 · 제3세계」, 『실천문학』, 34, 1994, pp. 253-281.
-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 사회』, 42, 1998, pp. 746-781.
- 홍옥현, 「제3세계 자본주의론에 관한 연구 -세계자본주의 이론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김진균편 『역사와 사회』 제1집 『제3세계와 사회이론』, 서울: 한울, 1983, pp.37-88.
- Barth, John, “소생의 문학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관하여”, 『세계의 문학』, 35, 1985, pp. 105-120.
- Borges, Jorge Luis, *Obras completas: 1923-1972*, Buenos Aires: Emecé, 1974.
- Carmagnani, Marcello, *Estado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 1850-1930*,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1984.
- Carpentier, Alejo, “De lo real maravilloso americano” in Norma Klahn y Wilfrido H. Corral(ed.), *Las novelistas como críticos*, t.1, México, D. 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91, pp. 381-392.
- Dash, J. Michael, “Marvellous Realism-The Way out of Négritude”, *Caribbean Studies*, 13: 4, 1974, pp. 57-70.

- Donghi, Tulio Halperin, *Historia contemporánea de América Latina*, Madrid: Alizanza.
- Durix, Jean-Pierre, *Mimesis, Genres and Post-Colonial Discourse: Deconstructing Magic Realism*, Great Britain: Macmillan Press, 1998.
- García Canelini, Néstor,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D. F.: Grijalbo, 1989.
- García Márquez, Gabriel, *Conversaciones con Plinio Apuleyo Mendoza: el olor de la guayaba*, 2nd ed., Bogotá: Oveja Negra, 1983.
- González Echevarría, Roberto, *Alejo Carpentier: el peregrino en su patria*, México, D.F.: UANM, 1993.
- Jameson, Fredric, "On Magical Realism in Film", *Critical Inquiry*, 12: 2, 1986, pp. 301-325.
- Karp, Eliane, "Transposición del surrealismo francés al 'real maravilloso' latinoamericano: el caso de Miguel Angel Asturias con *Hombres de maíz*", *Léxis*, 6: 1, 1982, pp. 99-116D.
- Lorenz, Gunter W., "Diálogo con Miguel Angel Asturias", *Mundo Nuevo*, 43, 1970, pp. 35-51.
- Márquez Rodríguez, Alexis, *Lo barroco y lo real-maravilloso en la obra de Alejo Carpentier*(introducción a *Obras completas* de Alejo Carpentier), México, D. F.: Siglo XXI, 1982.
- _____, "El surrealismo y su vinculación con el realismo mágico y lo real maravilloso", en Fernando Burgos(ed.), *Prosa hispánica de vanguardia*, Madrid: Editorial Orígenes, 1986, pp. 77-86.
- Martí, José, *Nuestra América*, Buenos Aires: Losada, 1980.
- Mena, Lucila Inés, "Hacia una formulación teórica del realismo

- mágico", *Bulletin Hispanique*, Vol. 127: 3-4, 1975, pp. 395-407.
- Menton, Seymour, *Magic realism rediscovered(1918-1981)*, Philadelphia: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3.
- Moretti, Francisco, 「세계 체제, 근대의 서사시, 마술적 리얼리즘-백 년 동안의 고독」, 『세계의 문학』, 93, 1999, pp. 277-301.
- Parkinson Zamora, Lois y Wendy B. Faris(ed.), 『마술적 사실주의』 (우석균 · 박병규 외 공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1.
- Parkinson Zamora, Lois y Wendy B. Faris(ed.), *Magical Realism: Theory, History, Community*, 2nd ed.,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7.
- Rodó, José Enrique, *Obras completas*, Madrid: Aguilar, 1957
- Rodríguez Monegal, Emir, "Lo real y lo maravilloso en *El reino de este mundo*", *Revista Iberoamericana*, 76-7, 1971, pp. 619-649.
- Roh, Franz, *Realismo mágico(post expresionismo): problemas de la pintura europea más reciente*, Madrid: Revista de Occidente, 1927.
- Rowe, William y Vivian Schelling, *Memory and Modernity*, London/New York: Verso, 1993.
- Said, Edward W., 『오리엔탈리즘』(박홍규역), 서울: 교보문고, 1996.
- Sebreli, Juan José, *El asedio a la modernidad*, 2nd ed., Buenos Aires: Editorial Sudamericana, 1992.
- Slemon, Stephen, "Magic Realism as Post-Colonial Discourse", *Canadian Literature*, 116, 1988, pp. 9-23.
- Tiffin, Helen, 「탈식민주의 문학과 반언술행위」, 『외국문학』, 31, 1992, pp. 32-54.
- _____, "Post-Colonialism, Post-Modernism and the Rehabilitation of Post-Colonial History",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23: 1, 1988, pp. 169-181.

Ude, Wayne, "North American Magical Realism", *Colorado State Review*, 8: 2, 1981, pp. 21-30.

Volek, Emil, "Realismo mágico entre la modernidad y la postmodernidad: hacia una remodelización cultural y discursiva de la nueva narrativa hispanoamericana", *Inti*, 31, 1990, pp. 3-20.

Resumen

La modernidad del realismo mágico: el establecimiento de la narrativa poscolonial a través de la búsqueda de la autonomía cultural

Woo, Suk Kyun

Aunque existe cierta confusión sobre el concepto del realismo mágico, sigue siendo un concepto vigente. A partir de la década de los 80, la crítica literaria comenzó a relacionar el realismo mágico con el posmodernismo y el poscolonialismo. Este fenómeno confirma las intenciones académicas de universalizar el realismo mágico. El problema es, sin embargo, que muchos críticos ya no hacen caso del contexto latinoamericano, por lo cual la perspectiva sobre el realismo mágico puede perder equilibrio.

El origen del realismo mágico remonta al período colonial. El ambiente colonial estaba estancado por la poca posibilidad de conseguir ascenso social para la gente de la colonia debido a la política de España. Por lo tanto, esta gente buscaba consuelo en el misticismo; como la fe en Guadalupe o en la vuelta del Inca. Este es el origen de la mentalidad irracional, o sea mágica de los latinoamericanos. La mentalidad mágica subsiste aún porque la situación de América Latina no ha mejorado mucho. Además, debido a la heterogeneidad multitemporal, una importante característica de la modernidad latinoamericana, no es extraña la convivencia de la creencia mágica y la razón como se muestra en

la tesis de Alejo Carpentier y Gabriel García Márquez. Por lo tanto, es justo decir que el realismo mágico es un claro producto del contexto social e histórico de América Latina.

No intentamos decir que la mentalidad mágica ha conducido automáticamente al realismo mágico. Para ello se necesitaba un discurso capaz de postular la creencia mágica como una categoría equivalente o superior a la razón. Este discurso se ha constituido durante largo tiempo, desde José Martí y José Enrique Rodó hasta los epigonos mexicanos de Oswald Spengler y José Ortega y Gasset. A través de este proceso, se formó una cultura que respeta la 'diferencia' de América Latina, o sea una cultura poscolonial. Desde este momento en adelante, la literatura que trata de la convivencia de la mentalidad mágica y la racional se ha considerado como una literatura autóctona y representativa de América Latina.

El posmodernismo(sobre todo, el de los Estados Unidos) no ve esta peculiaridad histórica, social y cultural del realismo mágico latinoamericano. Generalmente rescata algunas técnicas literarias del realismo mágico para aplicarlas a la literatura occidental. En el caso del poscolonialismo, se comienza con una perspectiva diferente. El poscolonialismo rescata los elementos históricos y sociales del realismo mágico. Sin embargo, el resultado no es muy diferente al del posmodernismo porque tampoco da mucha atención al contexto latinoamericano. El poscolonialismo más bien se interesa en los elementos históricos y sociales que son universalmente aplicables.

Key words : 미술적 사실주의(realismo magico),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modernidad latinoamericana), 문화적 주체성(autonomia cultural),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o),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o)